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5년 10월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등

1. 시작 성가: 271(로사리오 기도를 드릴 때)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성가경연대회(10월 30일)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63(온 세상에 전파하리)

MEMO

성체성사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주교와 사제, 부제, 남녀 봉헌 생활자와
모든 평신도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

12. 성찬의 희생 제사가 지닌 이러한 보편적 사랑의 측면은 구세주 자신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루가 22, 19-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 주시는 것이 당신의 몸과 피라고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희생 제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셨으며,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곧 바쳐지게 될 당신의 희생 제사를 성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가 영속되는 제사적 기념이며, 동시에 또 이와 분리할 수 없이,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친교의 잔치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희생 제사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임없이 길어 옵니다. 교회는 신앙으로 충만한 기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 희생 제사에 다가갑니다. 이 희생 제사는 축성된 집전자의 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성사적으로 영속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인류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이루신 화해를 가져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제사와 성찬의 희생 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은 이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희생양을, 내일은 또 다른 희생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희생양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사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 지금도 우리는 단 한 번 바쳐졌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재현하며, 그 희생 제사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도, 그것을 늘리지도 않습니다. 되풀이되는 것은 그 제사를 기념하는 의식, 곧 “기념의 표명”(memorialis demonstratio)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하나이며 결정적인 구원의 희생 제사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현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찬 신비의 희생 제사적 성격을 십자가와 별개인 독립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해골산의 희생 제사를 단지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여라.

- 마태 28,16-20-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신 우주적인 권한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소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행동은 복음서 곳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위가 어디서 오는지 늘 궁금해 했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공간), 세상이 끝날 때까지(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하느님으로부터 전권이 그분 안에 충만해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권한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것” 을 명령하십니다.

모든 이에게 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② 공생활 때 배웠던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을 명하시며 ③ 언제나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안심하고 종말 때까지 순례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세상 모든 이들을 아버지의 품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이요, 믿는 이의 사명이지만 말만으로는 호소력이 약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만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이며 생활이어야 합니다.

바쁜 세상에 어떻게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성당 가자고 조르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평소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서에서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자비와 인내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나눔>

1. 그리스도 신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닮은 자녀입니까?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이들을 사랑해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얼른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